

## 축사

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개최하는 “2014년 수화사랑음악회”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따뜻한 음악회가 매년 열릴 수 있는 것은 해성스님과 연화원 가족들의 소중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.

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게 사실입니다. 금일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,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.

부처님 제자 중에 천안통을 얻어 진리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었던 천안제일 아나올존자는 시각장애인입니다. 또한 지적장애인이었던 주리반특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덕을 잘 활용하고 정진하여 아라한의 단계에 올랐습니다. 이렇듯 경전 속에는 장애인 수행자가 인욕과 지혜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

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그 하모니가 울려 퍼져 온 세상에 전해진다면 우리사회도 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화답해 올 것입니다.

우리 불교계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에, 앞으로 장애인 복지 활성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방곡곡 자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수화사랑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,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**불기 2558(2014)년 12월 14일**

**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**